

피눈물과 웃음을 너무도 상반되는 개념이다. 그러나 온 남녀가 피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혼자 웃음을 짓는 한 악녀가 있으니 그게 바로 박근혜이다.

『세월』호 참사 문제와 관련하여서도 그렇게 말 할 수 있다.

이번에 수백 명의 아이들과 함께 바다 물속에 잠기었던 『세월』호가 3년 만에 제 모습을 드러냈다. 여기저기 검붉은 녹이 쓰고 찢기고 터진 처참한 모양을 하고 수면 위에 드러난 『세월』호의 모습에서 유가족들은 또다시 오열을 터뜨리였다.

『우리 아이가 저렇게 지저분한데 있었구나…』, 『이렇게 하루밤 이면 올라올 것을 왜 3년씩이나 차디찬 바다 속에 있었느냐.』며 쓰리고 쓰린 가슴을 쥐여뜯는 유가족들의 눈가에선 피눈물이 흘러내렸다.

돌이켜보면 『세월』호 침몰 후 3년은 그야말로 지워지지 않는 아픔과 분노의 긴긴 낫파 밤이였다.

차디찬 바다 물속에서 숨진 아이들의 명복을 빌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 를 요구하며 유가족들이 흘린 피눈물을 합치면 아마 강물을 이룰 것이다.

하기에 박근혜의 특대형 권력 추문 사건을 규탄

하는 대규모 초불집회들 에서도 『세월』호의 진상 규명은 기본 주제의 하나였다.

유가족들은 물론 초불집회에 참가한 남조선의 수많은 남녀로소 들은 『(세월) 호침몰의 주범은 박근혜이다.』, 『의문의 7시간을 국민 앞에 공개하라』, 『박근혜는 내리고 『세월』호는

월』호 참사진 상규명을 요구하는 유가족들과 남조선 인민들을 두고 『시체장사군』, 『세금에 눈독들인 도적들』이라고 보우하며 『세월』호인양을 3년씩이나 의도적으로 미루어 운 것도 바로 저들의 치열리는 죄상이 더욱 여론화 될까봐 두려워한 박근혜와 그 일당이었다.

이것만으로도 천추에

## 피눈물과 웃음

울리자.』고 하면서 줄기찬 투쟁을 벌리였다.

그들의 힘찬 투쟁에 의해 박근혜는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고 가라앉았던 『세월』호는 수많은 의문과 사연을 안은 채 며으르게 되었다.

비극은 처참한 모습으로 떠오른 『세월』호를 바라보며 유가족들이 피눈물 속에 몸부림칠 때 살인마 박근혜는 암마의 웃음을 짓고 있는 것이다.

침몰하는 배 안에서 수백 명의 아이들이 손톱이 다빠지고 손가락이 꿀절되도록 선체벽을 허비며 살려달라고 애타개 울부짖을 때 남에게 젊고 곱게 보이겠다며 상관주를 살을 펴는 놀음과 머리치장에 미쳐있던 특등생들, 늙은 암개가 바로 박근혜였다. 『세

용납 못할 범죄사행으로 친벌을 받아 마땅하겠으나 박근혜는 겸찰조사를 받고 나오면서도 무엇이 좋은지 추한 상통에 웃음을 담았었다.

지난 3년 전 팽목항에서 『악어의 눈물』을 보며 치를 떨던 유가족들을 비롯한 남조선인민들이 오늘날에는 삼성동에서 암마의 웃음을 보고 전율하고 있다.

악한은 인민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면 그것이 흡족하여 너털웃음을 짓는다. 고대로 마시기를 불바다에 잠근 독재자 네로가 희열에 넘쳐 너털웃음을 지었던 것은 역사에 잘 알려져 있다. 그런 인두겁을 쓴 네로나 수백 명의 아이들을 죽이고 남조선을 사람 못 살 생지옥으로 만들어놓고

과 겨레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 박근혜 역시 국악무도한 동족대결 소동으로 집권 수년을 허비하다가 종당에는 임기도 못 채우고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 송장보다 못한 가련한 신세가 되었다.

박근혜가 시키는대로 갖은 뜻된 짓을 다하며 엄청난 죄악을 저질러온 그 부역자들이 박근혜의 비참한 운명에서 교훈을 찾을 대신 아직도 대결 근성에 사로잡혀 반공화국 대결 소동에 기를 쓰고 매달리고 있는 것은 저들 스스로 더러운 죽음을 앞당기는 가련한 짓이 아닐 수 없다.

민심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대세가 무엇인지 도 가려보지 못하고 물담벙술덤벙하며 동족대결에 계속 열을 올려봐야 저들의 목에 걸린 울가미를 스스로 더욱 조이는 결과만을 거두거나 없다.

한편 보고서에는 공화국의 사거리 70km 이상인 자

도 보란듯이 그 흉물스러운 낯짜에 웃음을 담은 박근혜나 무엇이 다른가.

인간이 아닌, 인간 백정을 초월하는 21세기 암마의 모습에서 온 민족이 분노로 치를 떨고 있다.

하긴 수천만 우리 겨레가 훌린 피눈물이 삼천리를 적시게 만든 일본제국주의의 잔악무도한 식민지지배가 『하느님의 축복』이였다고 서슴없이 망언을 늘어놓은 국악한 친일매국노를 총리로 까지 내정했던 박근혜이고 보면 수백 명 아이들의 목숨쯤이야 무엇이 대수이고 느껴지는 아픔이 있으랴…

지금 남조선인민들은 『박근혜는 구속이 아니라 처형해야 한다.』, 『저런 암마년이 3년간 인간의 탈을 쓰고 우리 퍼를 빨아먹었다.』, 『피눈물 속에 말라죽게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분노를 폭발시키고 있다.

박근혜는 뻔뻔스러운 입가에 지었던 그 암마의 웃음의 대가를 처절히 치르게 될 것이다.

본사기자 김명성

남조선의 동족대결 세력이 공화국의 군사적 위력을 결고 그 무슨 『대웅책』을 강구한다며 야단법석을 퍼우고 있다. 얼마 전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과 행정부의 부처 장관들, 외교 안보 전문가를 비롯한 어중이떠중이들이 『안보 보고서』라는 것을 발표한 것도 그것을 잘 말해 준다.

보고서에는 공화국의 핵 및 로켓 능력의 고도화로 남조선이 『최악의 안보 위기』에 직면하였다고 하면서 그 『대웅책』으로 핵무기를 직접 개발하거나 미국의 전술핵 무기를 다시 반입하고 공화국의 지하 핵 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첨단 무기들을 확보하며 전자, 통신 체계도 마비 시킬 수 있는 전자 기파란(EMP란) 같은 것을 도입하여 『북도발』을 억제하는 『상호 핵 증파 파전략』을 수립한다는 것이 밝혀져 있다.

한편 보고서에는 공화국의 사거리 70km 이상인 자

얼마 전 미국 회의 하원에서 그 무슨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 법』이라는 것 이 발의되었다.

또 유엔의 이름을 도용하여 언론 성명이라는 것도 발표하였다 한다.

공화국의 자주 적권 리행사와 날로 막강해지는 자위력에 전 전공공 하던 나머지 고안해낸 것이 경제적으로 『고사』 시키기 위한 이른바 『전방 위적 제재』, 『력대 최대의 고강도 제재 법안』이고 언론 성명이라는 것이다.

더욱 가판은 남조선의 외교부 장관 윤봉세와 같은 자들이 노는 꼴이다.

민족 반역과 동족 대결로

총체적 파멸 위기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남조선의 보수 세력들의 단말마적인 발악이 아닐 수 없다.

알려진 것처럼 2010년

3월 26일 북침 전쟁 연습을 돌아 치던 『천안』호가 서해 해상에서 원인 모르게 침몰되었다. 그

행포와 방사포 공격은 이스라엘 산 『아이언 돔』으로, 고도 40km 아래로 날아오는 북의 탄도 미사일은 『페트리오트』로, 고도 40~150km로 접근하는 로켓은 미국의 『싸드』와 『SM-3』 미사일로, 고도 150~500km에

## 박근혜 역도 서울 구치소에 구속

남조선에서 『대통령』 직에서 파면된 박근혜의 구속을 요구하는 각 계층 인민들의 투쟁이 힘 있게 벌어지는 속에 3월 30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역도의 구속을 결정하는 형장 실질 심사가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31일 새벽 박근혜는 탄핵된 21일 만에 서울 구치소로 압송되어 죄수복을 입고 독감 방에 갇히였다.

박근혜는 전직 『대통령』 폐우를 완전히 박탈당하고 구속된 상태에서 검찰의 추가 수사와 형사 재판을 받게 된다.

결국 박근혜는 사상 처음으로 혐의로 모든 범죄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대통령』이라는 오명과 함께 전두환, 로태우에 이어 세 번째로 감옥에 갇힌 전직 『대통령』

고이 땅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도 남조선의 동족 대결 세력이 실효성이 없는 온갖 잡동사니들을 긁어 모아 그 누구의 『위협』을 막아보겠다고 하고 있으니 어리석다고 해야 할 것이다.

따지고 보면 『상호 핵 증

수 있단 말인가. 『5종』이 아니라 『10종』, 『20종』을 형성한다 해도 어림없을 것이다.

『북핵 외교』의 영역을 확대하겠다는 것도 풍지박산 난 반공화국 공조체제를 부지해 보려는 한갓 단말마적 발악에 지나지 않는다.

한마디로 공화국과 계속 대결 해보겠다는 것은 셀을 쥐고 불 속에 뛰여드는 것과 같은 우둔한 망동이다.

공화국은 자기의 존엄과 생명 안전을 건드리는 자들은 그가 누구든 추호도 용서치 않는다.

남조선 당국은 확당무게하기 그지 없는 『안보 보고서』 따위를 내들고 저들의 친미 사대 매국과 동족 대결 책동을 합리화하며 공화국과 끝까지 맞서 보려고 발광할 수록 저들의 비참한 최후 종말을 더욱 앞당기게 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정의도, 시간도, 최후 승리도 공화국에 있다.

본사기자 김련옥

## 어리석은 자살적 망동

서 접근하는 로켓은 미

국의 해상기반 요격 체계인 『SM-3』으로 각각 요격하는 『5종 방어망』을 형성하며 미국, 일본 등에 치우치던 『북핵 외교』의 영역을 조선반도 주변 나라들까지 확대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고 한다.

한마디로 『안보 보고서』라는 것은 공화국의 핵 위력에 질겁 한 자들의 시대착오적인 대결 각본, 자멸 각본에 지나지 않는다.

여러 차례 천명된 바와 같이 공화국의 핵 억제력은 날로 가증되는 미국의 핵 위협에 맞서 나라와 인민의 안녕과 존엄을 지키

정책의 불씨를 살려보려고 또 혀바닥이 많도록 구걸질이다.

그런다고 미국 상전인들 무슨 뾰족한 수가 있겠는가.

그들도 궁여지책으로 늘 써먹던 제재 따지밖에 들고나올 수 없는데야. 윤병세가 참 가련하기 그지 없다.

그 발작증을 봐줄 날도 얼마 남진 않았다.

박근혜와 함께 역사의 쓰레기통에 처박히게 될 윤병세의 비참한 시각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거

문이다.

본사기자 김현

## 『구걸장관』의 『미친 병』 증세

북제재』니 개하품 같은 소리나 떠들어대고 있다.

미국의 『강력한 제재』라는 것이 이번에 비로소 생겨난 것인가.

수십 년 동안 벌려온 것이 고 미국이 돌격 대도구를 하는 손아래 『동맹국』 들까지 총동원하여 『유엔 70여년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비군사적 정벌』이

이니,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니, 『선택의 여지가 없게 할 공조』니 하며 공화국에 대한 제재 소동을 벌리다 제풀에 주

을 수 없게 된 것뿐이다.

파거는 오늘의 교훈이고 래일의 방향이라고 하였는데 미국의 제재 따위는 공화국에 통하지 않는다는 것쯤은 깨달아야 하겠지만 종말을 고한 박근혜와 함께 총파산된 대결

